

회색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유경희
Hitel 원로방 대표

1. 회색문헌이란?

유럽에서는 “회색문헌(Grey Literature)”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라고 한다. 이것은 특별히 이러한 문헌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는 미국의 NTIS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불려서 일반화 되어버린 용어라고나 할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Difficult-to-obtain Report” 즉 입수하기 어려운 문헌을 말한다.

즉 정부기관이나 각종단체에서 부정기적으로 제작하는 보고 문헌으로서 소수만 출판해서 보급하는 보고서로서 상용화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집하기가 어려우므로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려고 하여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NTIS가 미국내의 각종 보고서를 모두 수집하여 마이크로화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즉 NTIS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회색문헌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회색문헌

정부 각 부처나 각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연구소 및 기업체 등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는 대체로 100부 정도 인쇄하여 관련기관 및 개개

인 몇몇사람에게만 배포하고 만다. 그래서 품질되어 버린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으며, 이러한 것이 존재했었던 것조차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본인이 어느기관의 국장실을 방문했을때 아주 희귀한 보고서를 발견하고 속으로는 왜 이러한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런식으로 몇사람에게 배포하고 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혹시 이 보고서 한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정중히 물어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이것 밖에 없는데... 복사해드리면 너무 분량이 많고...”라는 대답이다. “복사비는 내겠습니다.”라

고 해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좋은 방법 한가지 알려 드리지요. 제가 이것을 이틀간만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복사하신후 원본을 돌려 주십시오.” 이만한 공무원은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이다.

“보안때문에 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앞뒤가 막힌 공무원이 더 많다. 기술정보의 유통에 꼭 막힌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국인이 방문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 보고서를 상납하다시피 친절하게 하는 모습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보고서가 일괄적으로 정리되어서 필요로 하는 국민이 마음대로 액세스해보고 원문도 구입할수 있는 체제가 되어있지 않다.

3 미국의 Japan

Documentation Center(JDC)

미국 국회도서관안에 1개부서로서 JDC란 곳이 있는데 이것은 미·일 협력에 의하여 일본의 회색문헌의 입수를 하는 곳인데 이를 위하여 일본 동경에 JDC/TAF(Tokyo Acquisition Facility)라는 이름의 동경사무소까지 두고 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공식적으로 입수될 수 있는 보고서의 도착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현지에

서 수 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입수한 자료는 서지정보를 디스크에 넣고 실물과 함께 JDC로 보낸다.

여기서 몇가지 가공을 추가해서 SCORPIO 시스템에 입력해 둔다. 이중 법률관련 문헌은 LC MARVEL에 추가한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에 올려져서 많은 미국 국민이 일본정보를 읽을수가 있게 되어있다.

미국이 일본의 회색문헌의 입수에 이렇게 혈안인 이유는 그만큼 일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볼수 있다고 쳐도 도대체 우리나라의 것은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가? 도대체 그런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가조차 모르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4 국내에서 생산되는 회색문헌

정부각부처 및 산하단체에서 생산되는 회색문헌이 도대체 몇건이나 될까? 미국의 NTIS가 연간 7만건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1만건정도는 되지 않을까? 석사·박사 학위논문도 이 부류에 속한다면 이것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가 발표하는 연구보고서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모두

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일이다.

이들의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쉽게 액세스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고나서 이것이 외국인에게 이용되기 쉽게 국제화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기술수준은 우리가 모두 안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더러 보이던데...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술보고서에 대하여 망라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모두가 자기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허겁지겁하느라고 이런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외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하면서도 국내의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기가 본인도 국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만큼도 안되었을때 부산출장가면서 부산에서 숙박할 호텔을 외국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보았으니까...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국제화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DC**